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의 조범현 감독이 11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9 프로 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시리즈 리허설 끝났다



KIA 엔트리 확정... 낮경기 대비 자체 홍백전

“SK든 두산이든 오라”... 선수들 자신감 충만

KIA 타이거즈가 11일 오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자체 홍백전을 갖고 한국시리즈 리허설을 끝냈다. 이번 홍백전은 10일 한국시리즈에 참가할 26명의 엔트리가 발표된 후 갖는 '정예멤버'들의 경기이자 KIA의 약점인 낮경기에 대비한 연습이었다. 또 이번 경기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한국시리즈 3차전 선발투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했다. 김상현의 결승홀런을 앞세운 백팀의 3-2 승리로 끝난 이번 경기에서 양현종과 구본승의 선발 대결이 이뤄졌다.

백팀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5이닝동안 3피안타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안치홍과 이현곤에게 허용했던 볼넷이 모두 실점으로 연결되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한국시리즈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했다. 직구 최고구속은 147km, 슬라이더는 130km, 체인지업은 129km였다. 양현종은 “투구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피칭을 했다”고 밝혔다.

홍팀 선발 구본승은 5이닝 6피안타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구질점점에 초점을 맞춘 구본승의 최고구속은 직구 144km, 싱커 142km, 커트 패스트볼 139km, 포크볼은 128km를 기록했다. 김상현에게 홀런을 허용한 한기주는 패전 투수가 됐다. 6회말 2-2의 상황에서 백팀 마운드를 넘겨받은 한기주는 첫 타자 김상현에게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허용하는 등 2이닝동안 8명의 타자를 맞아 3피안타(1홈런) 1볼넷 1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18일 주간경기 선발을 놓고 양현종과 구본승을 저울질 하고 있는 조범현 감독은 이날 홍백전을 종합해 선발투수를 내정할 계획이다. 한국시리즈 3차전인 18일 경기는 KIA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 시즌 KIA는 5번의 주간경기에서 모두 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다. 공교롭게도 5번의 주간 경기 중 세 경기는 두산과의 대결이었고, SK와도 한 차례 맞대결을 가졌다. 특히 주간에 진행된 두산과의 개막 2연전에서는 윤석민, 양현종이 나란히 패전투수가 되기도 했다. 한국시리즈 통틀어 주간 경기는 한 경기에 불과하지만 단판 승부에서 1승의 가치는 특별하다. 주간 홍백전을 통해 선수단의 컨디션을 점검한 KIA는 투수진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시리즈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범현 감독 PO 3·4차전 관전

○KIA 조범현 감독이 전력분석을 위해 두산과 SK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잠실구장을 찾으면서 이번 홍백전은 사령탑없이 진행됐다. 10일 잠실구장을 찾아 플레이오프 3차전을 지켜본 조 감독은 11일 4차전까지 직접 지켜본 뒤 이날 밤 광주로 복귀했다.

자체 홍백전 500여 관중 몰려

○자체 홍백전이 열린 11일 무등경기

신인 정용운·노장 이대진도 KS 편다

장 야구장에는 500여명의 관중이 찾았다. 휴일 오후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가죽단위 나들이객도 눈에 띄는 등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야구를 지켜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엔트리에는 1997년 한국시리즈 당

합속통해 'V10' 만반의 준비

○10일 선수단의 합속훈련이 시작됐다. 신안파크호텔을 숙소로 잡은 선수단은 한국시리즈 동안 합속을 하면서 'V10'을 향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다. 한편 합속이 시작된 10일 한국시리즈에 참가할 26인의 엔트리가 발표됐다. 이번 엔트리에는 1997년 한국시리즈 당

시 2승을 챙겼던 노장 이대진이 합류했고, 좌완 신인 정용운이 깜짝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엔트리 명단 ▲감독 : 조범현 ▲코치 : 김종모·황병일·김동재·최태원·장재중·간배 토시오 ▲투수(11명) : 이대진, 서재응, 유동훈, 구본승, 로페즈, 윤석민, 손영민, 양현종, 한기주, 박정철, 정용운 ▲내야수(8명) : 김종국, 이재주, 홍세안, 최희섭, 이현곤, 김상현, 박기남, 안치홍 ▲외야수(5명) : 이종범, 장성호, 김원섭, 이응규, 나지완 ▲포수(2명) : 김상훈, 차일목 /김여울기자 wool@

PO 승부 원점

SK, 잠실서 두산에 반격 2연승

내일 KS행 막판 승부



3년 연속 챔피언에 도전하는 SK 와이번스가 적지에서 기적같은 2연승을 거둬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정규시즌 2위 SK는 11일 잠실구장에서 계속된 2009 CJ마구마구 프로야구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4차전에서 3-3으로 팽팽히 맞선 7회초 2사 1.2루에서 박정권이 썩사이 결승 2루타에 힘입어 두산 베어스를 8-3으로 제압했다.

안방에서 총력의 2연패를 당하고 잠실로 건너온 SK는 바람 끝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해 승부를 5차전으로 몰고 갔다. 운명의 5차전은 13일 오후 6시 장소를 다시 인천문학구장으로 옮겨 펼쳐진다.

마지막 5차전에서 이기면 두산이나 SK나 모두 3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 역대 19차례 5전3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2패 후 3연승으로 뒤집기에 성공한 팀은 1996년 현대가 유일하다. SK는 53%의 확률에 도전한다. 반면 두산은 통산 8번째 한국시리즈 티켓을 노린다.

빈타에 허덕였던 앞선 경기와 달리 초반부터 화끈한 타격전이 분위기를 달렸다. 선취점은 SK의 몫이었다. 1회초 박정권의 중견안타로 만든 2사 1.3루 기회에서 두산 선발 김선우가 폭투를 저지른 사이 3루 주자 김재현이 홈에 안착했다.

SK는 2회초에도 기세를 몰았다. 김강민이 좌선상 2루타를 때려 출루하고 최정의 우전 적시타가 터졌다. 뜰타자 정근우도 3루수와 유격수를 꿰뚫은 좌전 적시타를 쳐내 3-0으로 달아났다.

1회말 중심타선에 걸린 1사 2,3루 찬스를 놓친 두산은 3회말 플레이오프에서 신들린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고영민의 한 방으로 균형을 맞췄다. 고영민은 3회말 무사 1.2루에서 SK 선발투수 글로버의 바깥쪽 높은 슬라이더(135km)를 가볍게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플레이오프 3호 홈런. 정규시즌 85경기에서 홈런 6개밖에 없었던 고영민은 놀라운 장타력을 자랑했다.

김선우는 제구가 되지 않아 고전하다 3회를 마치고 내려갔고 1차전 선발 글로버는 사흘 쉬고 등판한 부담 탓인지 볼살이 날카롭지 못해 2이닝만 던지고 조기 강판됐다.

두산은 3회말 동점을 만든 여세를 몰아 김동주, 김현수의 연속 안타로 무사 1.3루를 만들었지만 최준석의 3루앞 땅볼을 SK 내야진이 기막힌 수비로 병살타를 만들었다. 두산은 4회말에도 1사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고영민이 유격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쳤다.

SK도 5회 무사 1.3루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지만 7회 다시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두산의 수비 실책이 화근이 됐다. 정근우의 땅볼 타구를 유격수 손시현이 놓쳤고, 박재상의 좌전안타로 이어진 기회에서 대타 박정권이 삼진으로 물러난 뒤 이날의 히어로 박정권이 타석에 들어섰다.

플레이오프에서 홈런 2개를 기록한 박정권은 볼카운트 0-2에서 임태훈의 바깥쪽 빠튼볼을 코스대로 밀어쳐 2루타를 만들었다. 그 사이 1.2루 주자가 모두 홈을 파고들었다. 다음 타자 박재홍이 볼넷으로 나간 데 이어 김강민이 바뀐 투수 고창성을 상대로 다시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때려내 주자 둘을 더 불러들여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두산과 SK의 경기에서 SK가 8 : 3으로 승리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 올림픽 금 첫 시험대

그랑프리 1차 파리에 15일 개막



‘신기록 행진은 계속된다’

지난 3월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총점 207.71점으로 ‘마(魔)의 200점대’를 훌쩍 뛰어넘어 피겨퀸에 오른 김연아(19·고려대)가 치열했던 여름 전지훈련을 끝내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김연아의 이번 시즌 첫 무대는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15-18일·프랑스 파리)인 ‘트로피 에릭 봉파르’다.

지난 2006-2007 시즌 처음 시니어 무대에 데뷔했던 김연아가 처음 금메달을 차지했던 대회가 바로 ‘트로피 에릭 봉파르’다. 3년 전 우승의 기쁨을 되살릴 좋은 기회다.

‘트로피 에릭 봉파르’는 김연아에게 행운이 깃든 대회다. 지난 2006-2007 시즌부터 시니어 그랑프리에 도전한 김연아는 첫 대회였던 스케이팅 캐나다(2차 대회,168.48점)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시니어 무대에 연착륙했다.

김연아는 연이어 치러진 그랑프리 4차 대회 ‘트로피 에릭 봉파르’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내친김에 그해 12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하면서 김연아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김연아는 2007-2008 시즌에 치른 두 차례 그랑프리 시리즈(컵 오브 차이나, 컵 오브 러시아)에서 연속 금메달을 휩쓸었고, 2008-2009 시즌 두 차례 그랑프리 시리즈(스케이팅 아메리카, 컵 오브 차이나)까지 모두 석권하면서 무려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제 목표는 그랑프리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금메달. 3년 전 에릭 봉파르에서 시작했던 금메달의 행운이 계속될지 관심거리다.

또 팬들은 김연아가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역대 여자싱글 최고점(207.71점)을 뛰어넘어 210점에 진입 할 수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기록 작성과 우승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프로그림의 완성도를 테스트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리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합뉴스